

연구정책실 정책보고서

---

## 한국학 영문저널의 ‘특집’ 비교 분석: 동향과 함의

---

2020. 12.

 한국학중앙연구원

## I. 서론

한국학(Korean Studies)은 국내외적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학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sup>1)</sup>

한국학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높아진 위상만큼 한국학이 국내외에서 견실한 학문분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해외 한국학자들과 ‘한국학의 근원지’인 국내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국내외 한국학 연구가 한층 더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문제는 언어적 제약이 한국학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 공유와 논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sup>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학을 발전시키고 한국학의 학문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공통의 언어를 통해 연구의 기반이 될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언어의 장벽 없이 한국학 제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정보(scholarly information)의 공유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sup>4)</sup> 한국학 영문학술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기인한다. 특히 한국학 영문학술지의 특집은 한국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학 발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한국학 영문학술지에 실린 특집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선행 보고서<sup>5)</sup>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4종의 주요 영문학술지들을 중심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sup>6)</sup> 최근 5년

1) “한국학 세계화 붐에 비해 질적 수준은 ‘제자리’”(『한국대학신문』, 2018.5.7.)(<http://news.unn.net/news/articlePrint.html?idxno=188792>).

2) “한국학 세계화 붐에 비해 질적 수준은 ‘제자리’”(『한국대학신문』, 2018.5.7.)(<http://news.unn.net/news/articlePrint.html?idxno=188792>).

3) “한국학 세계화 붐에 비해 질적 수준은 ‘제자리’”(『한국대학신문』, 2018.5.7.)(<http://news.unn.net/news/articlePrint.html?idxno=188792>).

4) ‘코리아저널’ 이정현 편집장 “한국학 세계화 힘써야”(『경향신문』, 2001.11.28.)([http://news.khan.co.kr/print.html?art\\_id=200111282009261&mdia=khan](http://news.khan.co.kr/print.html?art_id=200111282009261&mdia=khan)).

5) 본 보고서는 선행 보고서의 후속편이다. 선행 보고서에서는 2015년~2019년까지 최근 5년간 6종의 해외 주요 영문학술지(*Journal of Contemporary Asia*, *Cross Currents*, *Pacific Affairs*, *Journal of Korean Studies*, *Journal of Asian Studies*, *Korean Studies*)에 게재된 한국학 관련 연구논문들을 연도별 변화, 분야별 변화, 주제별 변화, 저자별 특성, 그리고 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춰 한국학 연구의 최근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6) 본 보고서에서는 보고내용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보고서의 작성 시점인 2020년 상반기까지 분석대상 학술지에 실린 기획논문들도 포함해 다루었다.

간 이들 학술지에 실린 특집의 기존 동향을 기획주제, 기획의도, 기획논문에 초점을 맞춰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대상은 국내의 경우 현재 본원이 발간하고 있는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와 *Korea Journal*이며,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학에 관한 특집을 다루고 있는 *Korean Studies Journal*과 *Journal of Korean Studies* 2종이다.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이론, 시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창간 이후 연 2회 발간되는 국제적 수준의 영문학술지다.<sup>7)</sup> 1961년 창간 이래 한국학의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sup>8)</sup> *Korea Journal*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증진해 온”<sup>9)</sup> 권위 있는 전문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다.<sup>10)</sup>

해외로 눈을 돌려 1977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 주도해서 창간한 연간 학술지인<sup>11)</sup> *Korean Studies Journal*은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담론의 장(forum for discourse)을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증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명한 한국학 영문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다.<sup>12)</sup>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한국연구센터(Center for Korean Research)가 주관하고 듀크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가장 오래된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급 영문 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Studies*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학의 대표적인 종합학술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sup>13)</sup>

이들 저널은 국내외 한국학자들 간의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5년간을 분석범위로 하고 있어

7)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현재 국내외 학술평가기관(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SCOPUS, Korean Citation Index[KCI], MLA Directory of Periodicals)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로 등재되어 있다. *The Review of Korean Studies*(<https://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23200>).

8) *Korea Journal*(<http://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24200>).

9) Roger T. Ames(로저 에임스). (2011). “학술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의 조건.” “세계화시대 국내 인문학 영문학술지의 발전 전략” KOREA JOURNAL 창간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19-27, p. 19.

10) *Korea Journal*은 세계적 학술평가기관인 과학정보기구(ISI)의 예술·인문학 색인(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A&HCI])에 2001년 국내 학술지 중 유일하게 등재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학술평가기관(SCOPUS, MLA Directory of Periodicals,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BAS] 등)의 등재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코리아저널’ 이정현 편집장 “한국학 세계화 힘써야”(『경향신문』, 2001.11.28.)([http://news.khan.co.kr/print.html?art\\_id=200111282009261&mdia=khan](http://news.khan.co.kr/print.html?art_id=200111282009261&mdia=khan)); *Korea Journal*(<http://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2010124200>).

11) *Korean Studies Journal*([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Studies\\_\(journal\)](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Studies_(journal))).

12) *Korean Studies Journal* 역시 세계적 학술평가기관들(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SCOPUS, America: History and Life,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BAS], Geo Abstracts, GEOBASE, Historical Abstracts,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the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Current Awareness Services, PAIS International and Sociological Abstracts)에 공식 등재되어 있다. *Korean Studies Journal*(<http://manoa.hawaii.edu/koreanstudies/korean-studies-journal/>).

13)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https://en.wikipedia.org/wiki/The\\_Journal\\_of\\_Asian\\_Studies](https://en.wikipedia.org/wiki/The_Journal_of_Asian_Studi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https://muse.jhu.edu/journal/515>);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https://www.dukeupress.edu/journal-of-korean-studies>).

한국학과 관련한 특집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전 선행 보고서<sup>14)</sup>와 연속성을 갖는 만큼 한국학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영문학술지 특집의 최근 현황

### 1. 국내 현황

국내 본원이 발간하고 있는 *The Review of Korean Studies*(RKS)와 *Korea Journal*(KJ)은 각각 연 2회(biannually), 연 4회(quarterly)에 걸쳐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특집에도 이들 발간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RKS는 ‘Special Feature’, KJ는 ‘Special Issue’라는 형태로 특집을 실고 있다.

RKS 특집의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분석범위에 해당하는 2016년과 2019년에 3번에 걸쳐 기획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도 실렸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특집을 찾아 볼 수 없었던 KJ는 2018년과 2019년에 5회에 걸쳐 특집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RKS와 마찬가지로 KJ도 2020년 상반기에 기획논문으로 구성된 특집을 연속해 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이르는 특집들이 RKS와 KJ를 통해 발표되었다.

[표 1] 국내 영문학술지의 ‘특집’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No.1	No.2	No.1	No.2	No.1	No.2	No.1	No.2	No.1	No.2	No.1	No.2												
RKS				○					○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K J													○	○	○		○			○	○	○		

### 2. 국외 현황

국내 영문학술지와 비교해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의 *Korean Studies Journal*(KSJ)은 연 1회(annual) 발간되고 있으며, 콜롬비아대학교 한국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2019). 해외 한국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정책제안서.

Korean Studies(JKS)는 RKS와 동일하게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KSJ와 JKS의 특집은 KJ와 같이 ‘Special Issue’라는 형태로 출간되고 있다.

연도별로 KSJ는 2015년,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현재)을 제외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특집을 실었다. 이에 반해 JKS의 특집은 2015년과 2020년(현재)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3년(2017년, 2018년, 2019년)간 하반기에 3회에 걸쳐, 2016년에는 상·하반기에 연속해서 특집을 실었다([표 2] 참조).

[표 2] 국외 영문학술지의 ‘특집’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KSJ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No.1	No.2	No.1	No.2	No.1	No.2	No.1	No.2	No.1	No.2	No.1	No.2
JKS			○	○		○		○		○		

### III. 영문학술지 특집의 최근 동향

#### 1. 기획주제

##### 1) 국내

RKS는 [표 3]에서와 같이 2016년 19권 2호에 “13·14세기로의 재방문”이라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기획주제를 실었고, 2019년 22권 1호와 2호에는 “15세기 한반도: 다양성의 현저함”과 “조선의 역사와 문학: 외국의 관점”이라는 전근대 분야의 기획주제를 각각 다뤘다. 연이어 전근대 시대를 아우르는 주제인 “한국의 종교와 철학”이 RKS의 2020년 23권 1호를 장식했다.

한편 RKS가 특집을 내지 않았던 2018년에 KJ는 58권 4호를 제외한 모든 호에 현대 분야의 세 가지 주제를 연속해 실었다. “개인화와 지역사회 재건”, “비평으로서의 퀴어 연구와 한국학: 권한 부여의 새로운 목소리”, “21세기 한반도의 군사주의의 유산”이 그것이다. 연장선상에서 2019년 KJ는 “부패, 시민 저항,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59권 1호의, “한국영화의 세기: “조선영화”에서 글로벌 한국영화로”를 4호의 기획주제로 정해 현대 한국학의 제 분야를 정치적, 역사적으로 탐색했다. 2020년 현 시점에서 KJ는 “한류 속 대중문화의 초국

적성”, “잊혀진 전쟁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으로: 70년을 맞이한 한국전쟁” 같은 현대적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국내 영문학술지의 기획주제

구분	연도(권/호)		기획주제
RKS	2016(Vol.19/No.2)		• A Revisit to the 13 <sup>th</sup> and 14 <sup>th</sup> centuries [13 · 14세기로의 재방문]
	2019	Vol.22/No.1	• 15 <sup>th</sup> century Korean Peninsula: Splendor in Diversity [15세기 한반도: 다양성의 현저함]
		Vol.22/No.2	• History and Literature of Joseon: Foreign Perspectives [조선의 역사와 문학: 외국의 관점]
	2020(Vol.23/No.1)		• Korean Religion and Philosophy [한국의 종교와 철학]
K J	2018	Vol.58/No.1	• Individualization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개인화와 지역사회 재건]
		Vol.58/No.2	• Queer/Korean Studies as Critique: New Voices of Empowerment [비평으로서의 퀴어 연구와 한국학: 권한 부여의 새로운 목소리]
		Vol.58/No.3	• Legacies of Militarism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wenty-First Century [21세기 한반도의 군사주의의 유산]
	2019	Vol.59/No.1	• Corruption, Citizen Resistance,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n Korea [부패, 시민 저항,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Vol.59/No.4	• A Century of Korean Film: From “Joseon Film” to Global Korean Cinema [한국영화의 세기: “조선영화”에서 글로벌 한국영화로]
	2020	Vol.60/No.1	• Transnationality of Popular Culture in the Korean Wave [한류 속 대중문화의 초국적성]
		Vol.60/No.1	• From Forgotten War to Unforgettable War: The Korean War at Seventy [잊혀진 전쟁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으로: 70년을 맞이한 한국전쟁]

## 2) 국외

국내 RKS와 유사하게 KSJ도 전근대 분야의 고려 전반을 다각도에서 다룬 “고려: 소개”라는 기획주제를 2017년 41권에 게재했고, 2020년 43권에서는 “현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시각문화”를 주제로 한국학의 현대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뤘다([표 4] 참조).

그사이 JKS는 KJ와 비슷한 관심을 보였다. KJ가 2019년에 조명한 한국영화를 JKS는 앞서 2017년에 현대적 관점에서 “한국영화 속 냉전”이라는 기획주제로 접근했다. 전자는 역사적 맥락에서, 후자는 정치적 상황에서 한국영화를 짚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보다 앞서 JKS는 KJ가 기획주제(“비평으로서의 쿠퍼 연구와 한국학: 권한 부여의 새로운 목소리”)에서 보여준 한국학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2016년 “Nancy Abelmann을 기리며”, “한국 인류학의 다지역사”를 21권 1호와 2호의 각각의 기획주제로 삼아 한국학을 구성하는 인류학 분야를 학문적 차원에서 고찰했다. 2019년 선행 보고서에서 연구가 미진하다고 지적한<sup>15)</sup> 인류학 분야의 연구를 JKS가 두 번에 걸쳐 기획논문들에 담아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시대와 분야를 넓혀 “한국의 과학과 문학”(23권 2호), “전근대 한국의 기록보관소, 기록 관행 및 역사 쓰기”(24권 2호)와 같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학 주제에 대한 관심을 JKS는 보여주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국외 영문학술지의 기획주제

구분	연도(권/호)		기획주제
KSJ	2017(Vol.41)		• Koryō: An Introduction [고려: 소개]
	2020(Vol.43)		• Social Changes and Visual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 [현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시각문화]
JKS	2016	Vol.21/No.1	• In Memory of Nancy Abelmann [Nancy Abelmann을 기리며]
		Vol.21/No.2	• The Multi-Sited History of the Anthropology of Korea [한국 인류학의 다지역사]
	2017	Vol.22/No.2	• The Cold War in Korean Cinemas [한국영화 속 냉전]
	2018	Vol.23/No.2	• Science and Literature in Korea [한국의 과학과 문학]
	2019	Vol.24/No.2	• Archives, Archival Practices, and the Writing of History in Pre-modern Korea [전근대 한국의 기록보관소, 기록 관행 및 역사 쓰기]

## 2. 기획의도

### 1) 국내

RKS는 먼저 ‘몽골 헤게모니(Mongol Hegemony)’ 문제와 그것이 고려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의 관점에서 고려 왕조(918-1392) 후기에 해당하는 13세기와 14세기를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한국사 전체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많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다양한 상충적인 아이디어들이 표면화되었을 정도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가 13, 14세기라는 문제의식이 그 이면에 자리해 있다.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2019). 해외 한국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정책제안서.

내외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 한국학자들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성과 공유가 미진했던<sup>16)</sup> 국어학(Korean Linguistics), 문학, 음악, 의학, 건축 분야의 논문들로 구성된 “15세기 한반도: 다양성의 현저함”이라는 후속 기획주제 속에 스며들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학의 발전은 국내 한국학자들의 전통적 관점과는 다른 국외 학자들의 시각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정 세기를 넘어 “조선의 역사와 문학”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전근대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해외 학자들의 기획논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유교와 불교를 배경으로 7~8세기 고대에서 16~17세기까지 한국의 종교와 철학사상을 외국 학자들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있는 기획주제(“한국의 종교와 철학”)에서도 같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KJ는 기획주제 “개별화와 지역사회 재건”을 통해 사회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현대 사회 질서의 본질적 특성을 서구의 지배적인 시각이 아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학문적 관심은 한국학 연구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퀴어 연구(Queer Study: 성 정체성, 그와 관련한 문화사 연구)가 한국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학술적 주제(“비평으로서의 퀴어 연구와 한국학: 권한 부여의 새로운 목소리”)에도 나타나 있다.

뒤를 이어 같은 해 선보인 후속 주제 “21세기 한반도의 군사주의의 유산”은 최근 한국에서 정치적 논란이 되었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배치 사례를 계기로 한국 군사주의의 유산을 추적한 기획논문들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학 연구의 시각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소위 최순실 게이트(Choi Soon-sil gate)라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부패 스캔들이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던지는 연구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부패, 시민 저항,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미래”)도 있었다.

범위를 넓혀 한국의 문화를 학문적 관점에서 짚어보기도 했다. 2019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KJ는 한 세기가 넘는 방대한 양의 한국영화의 역사적 흐름을 기획주제(“한국영화의 세기: “조선영화”에서 글로벌 한국영화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영화의 100년 궤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였다. 한류(Korean Wave, Hallyu)에도 주목했다. 최근 한국학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류 현상을 “한류 속 대중문화의 초국적성”을 주제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대중문화의 흐름에 대한 서구 시각의 문제점을 보여

---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 (2019). 해외 한국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정책제안서.



주고자 했다.

끝으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잊혀진 전쟁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으로: 70년을 맞이한 한국전쟁”이란 주제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의도가 배어 있다.

## 2) 국외

국내 RKS의 고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KSJ로도 이어졌다. RKS가 특정 세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KSJ는 “고려: 소개”라는 기획주제에서 고려를 한국 역사에서 연구가 가장 미진한 시대로 인식하고 현대 한국을 준거 틀로 하여 고려 전반, 나아가 한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현대 한국이라는 같은 시·공간에서 발생한 촛불집회가 보여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각문화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시각문화의 새롭고 역동적인 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취지의 기획주제(“현대 한국의 사회 변화와 시각 문화”)도 볼 수 있다.

한편 JKS는 한국의 영화, 과학, 문학을 통해 한국의 대중 및 지식 문화의 일면을 살폈다. KJ가 다룬 한국영화의 역사를 “한국영화 속 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에 초점을 맞춰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였다. “한국의 과학과 문학”이란 기획주제 또한 과학과 문학이라는 용어의 관계가 민족국가나 식민지 관계 같은 특수한 국가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변해 왔는지, 그리고 이들 용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KJ가 보여준 학문적 관심 또한 JKS의 두 개의 기획주제(“Nancy Abelmann을 기리며”, “한국 인류학의 다지역사”) 속에 드러나 있다. 전자는 다양한 인류학적 주제를 가지고 한국학 분야를 조망하기 위한, 후자는 다양한 외국학자들의 역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류학적 지식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JKS는 다른 영문학술지와 마찬가지로 기획주제(“전근대 한국의 기록보관소, 기록 관행 및 역사 쓰기”)를 통해 한국학의 전근대 분야도 최근 들여다보았다. 어떤 이유에서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편집되고 보존되었는지,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와 같은 한국의 전근대 학자들 사이에서 좀처럼 제기되지 않는 질문들을 정치,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 짚어 보고자 했다.

### 3. 기획논문

#### 1) 국내

RKS는 [표 5]에서와 같이 기획주제(A)의 의도에 맞춰 이전과는 다른 각도의 개별 논문 4편을 소개했다. 기존 연구 동향을 일차적으로 검토(Aa)한 후 13·14세기의 외국상인의 한반도 방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정부의 대응을 경제적 측면에서(Ab), 고려 왕위 계승 과정에서의 원의 개입(Ac)과 당시 외교제도, 특히 외교의례(의전)를 통한 고려 왕의 지위 변화(Ad)를 정치적 측면에서 살폈다.

[표 5] RKS의 기획논문

구분	기획주제	기획논문
RKS	A. A Revisit to the 13 <sup>th</sup> and 14 <sup>th</sup> centuries (2016)	a. Trends and Prospects: Historical Studies on Koryŏ-Mongol Relationship in the 13-14th centuries(Lee Ik-joo) [동향 및 전망: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
		b. Foreign Merchants' Visit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Koryŏ People's Responses, in the 13-14th centuries(Lee Kang-Hahn) [13-14세기 해외상인들의 한반도 방문과 고려인의 대응]
		c. Changes in the Logic and System behind the Succession of the Koryŏ Throne under Mongol Subjugation(Lee Myungmi) [몽골 지배 하의 고려 왕위 계승의 논리와 체제 변화]
		d. From a Lord to a Bureaucrat: The Change of Koryŏ King's Status(Jung Donghum) [주(主)에서 관료로: 고려 왕의 지위 변화]
	B. 15 <sup>th</sup> century Korean Peninsula: Splendor in Diversity (2019a)	a. The Fundamental Studies Concerning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the Associated Compilation of Texts with Collected Commentaries during the Reign of Sejong(Sim Kyungho) [세종 시대 중국 고전 문학과 주석 집 관련 문헌 편집과 관련한 기초 연구]
		b. 15 <sup>th</sup> century Korean Grammar from a Viewpoint of Linguistic Typology and Historical Grammar(Park Jinho) [언어유형학 및 역사문법의 관점에서 본 15세기 국어문법]
		c. The Music Trend in the 15 <sup>th</sup> century Korea Shown in the Written Materials of Seong Hyeon(Song Hye-Jin) [성현의 문단에 나타난 15세기 한국음악의 경향]
		d. Health Policies under Sejong: The King who Searched for the Way of Medicine(Kim Seongsu) [세종 시대 보건정책: 의술(약)의 길을 찾은 왕]
		e. Architectural Design of Wooden Building during the 15 <sup>th</sup> century: Legacy and Beginning(Lee Woo-Jong) [15세기 목조건물의 건축설계 : 유산과 시작]

C. History and Literature of Joseon: Foreign Perspectives (2019b)	a. Narrating Dissent in Joseon Literati Discourse(Marion Eggert) [조선 문학 담론에서의 이견 서술]
	b. About the Tradition of Writing the “Fu on the Terrace for Viewing Fish” in the Early Joseon Period(Wook-Jin Jeong) [조선 초 "물고기를 보기 위한 테라스 푸" 쓰기의 전통에 대하여]
	c. State Symbols, Group Identity, and Communal Memory in Jeong Gyeong-un’s <i>Godae illok</i> , 1592-1598(Thomas Quartermain) [정경운 고대일록의 국가상징, 집단 정체성, 공동기억, 1592-1598]
	d. The Guan Yu Cult and Joseon-Qing Visions of State Legitimacy, 1882-1894(Joshua Van Lieu) [관우 제의와 조선-청의 국가 정당성 비전, 1882-1894]
D. Korean Religion and Philosophy (2020)	a. “The Transmission of the Canon is Difficult”: The Problematic Formation of the Confucian Way in Korea(Martina Deuchler) ["경전 전승의 어려움": 한국 도통론의 문제적 형성]
	b. Some Remarks on Influences from Silla in Some Works Commonly Ascribed to Du Shun, Focusing on <i>Huayan fajie guanmen</i> (Jörg Plassen) [‘화엄법계관문’을 중심으로 두순 저작에서의 신라 영향에 관한 일견]
	c. What Loved to Learn: The <i>Hwadam jip</i> and Seo Gyeongdeok’s Place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Joseon(Isabelle Sancho) [배우고 싶은 것: 화담집과 서경덕의 조선 지식사적 위치]
	d. Toegye’s Appraisal of Daoism(Vladimir Glomb) [퇴계의 도교 평가]

5편의 기획논문을 통해 주제(B)의 기획의도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 서 15세기의 중국 고전문학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형성 과정(Ba), 국어문법의 특성(Bb), 음악의 흐름(Bc), 의료정책(Bd), 목조건물의 건축설계(Be) 등을 다룬 국내 한국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그 바탕이 되었다.<sup>17)</sup> 4편의 논문을 배치해 국외 한국학자들의 눈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했다(C). 이들 논문은 18-19세기 조선 엘리트들의 철학적 속성과 태도(Ca), 14-15세기 글쓰기에 대한 조선 학자와 문인들의 접근 방식(Cb), 16세기 말 전쟁에 기인한 집단의식의 형성과 심리적 영향(Cc), 19세기 말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선 지도자들의 정치적 노력(Cd) 등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에 집중하고 있다([표 5] 참조).

17) 구체적으로 Ba는 조선 세종 때 '중국 고전 문학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분류 될 수 있는 학문적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Bb는 언어유형학과 역사문법의 관점에서 15세기 국어 문법을 검토했다. Bc는 조선 초기 음악사에서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한 성현(成俔)의 문단을 통해 15세기 조선 음악의 흐름을 고찰했고, Bd는 백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관점에서 조선 초기 세종의 의료정책을 살폈다. 끝으로 Be는 건축물의 집합부 및 장식 같은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춰 15세기 조선 목조건물의 건축설계를 탐색했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의 ‘도통’ 개념이 고려에 유입되어 조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착됐는지(Da), 신라시대 원효의 불교사상이 화엄사상의 핵심 요소와 당시 화엄 전통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Db), ‘화담집(花假集)’의 제작이 한국 지적 전통의 핵심 인물로 서경덕(西京德)(1489~1546)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Dc),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이 도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핀 외국학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기획주제(D)의 취지를 살리기도 했다([표 5] 참조).

KJ도 각각의 주제를 여러 논문들로 엮어 냈다. 먼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 3편에 기획주제(A)의 의미를 담았다. 동아시아 맥락에서 위험사회의 출현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버넌스 관점의 중요성을 밝혔고(Aa), 개인화에 대한 서구 담론의 문제점과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적 거버넌스 실험의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Ab)과 함께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역사적 정보와 사회학적 분석을 제공했다(Ac). 사례 분석과 작품 분석에 기초해 제도정치(institutional politics)의 관점에서 성 소수자의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퀴어 연구를 고찰한 논문들을 활용해 기획주제(B)가 의도하는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자기 표현의 관점에서 퀴어 자유주의(queer liberalism)와 정치운동의 관계(Ba), 한국 영화에 대한 퀴어 정치(queer politics)의 자유주의 비전의 영향(Bb), 소외된 사회집단의 반사회적 논평의 재연 매체로서의 뉴 퀴어 시네마(New Queer Cinema)의 성격(Bc)을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KJ의 기획논문

구분	기획주제	기획논문
KJ	A. Individualization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2018a)	a. The Historical Context of Social Governance Experiments in East Asia: <i>The Challenge of Risk Society</i> (Sang-Jin Han) [동아시아 사회적 거버넌스 실험의 역사적 맥락: 위험사회의 도전]
		b. East Asian Patterns of Individu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for Neighborhood Community Reconstruction(Young-Hee Shim) [동아시아의 개인화 패턴과 지역사회 재건에 미치는 영향]
		c. Bringing the Society Back In: <i>The New Qinghe Experiment and Social Governance in China</i> (Qiang Li, Lu Zheng & Hao Wang) [사회 복귀: 중국의 새로운 칭허 실험과 사회적 거버넌스]
	B. Queer/Korean Studies as Critique: New Voices of Empowerment (2018b)	a. Proud of Myself as LGBTQ: <i>The Seoul Pride Parade, Homonationalism, and Queer Developmental Citizenship</i> (Woori Han) [LGBTQ로서의 자부심: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민족주의, 퀴어 개발 시민권]
		b. Intimate Freedom: <i>Queering Anarchism in Leesong Hee-il's</i>

	<p><i>Films</i>(Kyungtae Kim) [친밀한 자유: 이송희일 영화 속 퀴어링 무정부주의]</p> <p>c. <i>The Critical Social Turn of Queer Korean Cinema: Hospitality and the Temporal Economy of Queer Kinship in The Bacchus Lady</i>(2016)(Ungsan Kim) [퀴어 한국영화의 중요한 사회적 전환: 박카스 레이디에서의 퀴어 친족의 환대와 시간적 경제]</p>
C. Legacies of Militarism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8c)	<p>a. <i>Mars and Manna: Defense Industry and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Korea under Park Chung Hee</i>(Peter Banseok Kwon) [화성과 만나: 박정희의 방위산업과 한국의 경제 변혁]</p> <p>b. <i>Militarism and Korean Protestant Churches</i>(In-Cheol Kang) [군사주의와 한국 개신교 교회]</p> <p>c. <i>Divergent Paths toward Militarized Citizenship: The “Unending” Cold War, Transnational Space of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Korean Male Students</i>(Hee Jung Choi &amp; Ga Young Chung) [군사 시민권을 향한 분기의 길: “끝없는” 냉전, 시민권의 초국가적 공간, 그리고 한국 남자 유학생]</p>
D. Corruption, Citizen Resistance,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n Korea (2019a)	<p>a. <i>Articulating Inequality in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16-2017</i>(YoonKyung Lee) [2016~2017년 촛불시위에서의 불평등 표출]</p> <p>b. <i>Determinants of Unaffiliated Citizen Protests: The Korean Candlelight Protests of 2016-2017</i>(WooJin Kang) [독립적 시민시위의 결정요인: 2016~2017년 한국 촛불시위]</p> <p>c. <i>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 Switching in South Korea’s 19<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i>(Woo Chang Kang &amp; Han-Wool Jeong) [한국 제19대 대선에서의 부패 스캔들과 투표 전환]</p> <p>d. <i>Privatized Foreign Policy? Explain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Process</i>(Yangmo Ku) [사유화된 외교정책? 박근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설명]</p>
E. A Century of Korean Film: From “Joseon Film” to Global Korean Cinema (2019b)	<p>a. <i>The Identity of “Joseon Film”’: Between Colonial Cinema and National Cinema</i>(Chonghwa Chung) [“조선영화”의 정체성: 식민지 영화와 국립 영화 사이]</p> <p>b. <i>The Status of Historical Frama Films in South Korea in the 1960s: The Relevance between the Film Industry and Genre Films</i>(Gil-sung Lee) [1960년대 한국의 역사극 영화의 현황: 영화산업과 장르영화의 관련성]</p> <p>c. <i>Coevolution of Conventions and Korean New Wave: Korean Cinema in the 1970s and 80s</i>(Hyoin Yi) [전통과 한류의 공진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영화]</p> <p>d. <i>From the Era of Melodrama to the Age of the Comedy and the</i></p>

		<p>Thriller: <i>The Simultaneous Transformations of Korean Society and Film Genr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i>(Yuhee Park) [멜로드라마 시대부터 코미디와 스릴러 시대까지: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한국사회와 영화장르의 동시적 변화]</p> <p>e. (In)Commensurability of Korean Cinema: <i>International Coproduction of Korean Films in the 2010s</i>(Suhyun Kim) [한국영화의 등가성: 2010년대 한국영화의 국제 공동 제작]</p>
	<p>F. Transnationality of Popular Culture in the Korean Wave (2020a)</p>	<p>a. Ssen-Unni in K-Pop: <i>The Makings of “Strong Sisters” in South Korea</i>(Jieun Lee &amp; Hyangsoon Yi) [K-POP의 썸-언니: 한국의 "강한 자매" 제작]</p> <p>b. Comparative Discourse on J-pop and K-pop: <i>Hybridity in Contemporary Local Music</i>(Dal Yong Jin) [J-pop과 K-pop의 비교 담론: 현대 지역음악의 혼합성]</p> <p>c. Webtoons Go Viral?: <i>The Globalization Processes of Korean Digital Comics</i>(Jaehyeon Jeong) [웹툰의 입소문: 한국 디지털 만화의 세계화 과정]</p> <p>d. “You Can’t Help But Love Them”: <i>BTS, Transcultural Fandom, and Affective Identities</i>(Courtney McLaren &amp; Dal Yong Jin)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방탄소년단, 트랜스컬처 팬덤, 감성적 정체성]</p> <p>e. Hallyu and Film Adaptation: <i>Maids of Decolonization in Park Chan-wook’s The Handmaiden</i>(Moonyoung Chung &amp; Heebon Park) [한류와 영화 각색: 박찬욱 감독 하녀에서의 탈식민지 하녀]</p> <p>f. Diasporic Korean Audiences of Hallyu in Vancouver, Canada(Kyong Yoon)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류의 디아스포라 한국 관객]</p>
	<p>G. From Forgotten War to Unforgettable War: The Korean War at Seventy (2020b)</p>	<p>a. From Occupation to War: <i>Cold War Legacies of US Army Historical Studies of the Occupation and Korean War</i>(Yong Wook Chung) [점령에서 전쟁으로: 점령과 한국 전쟁의 미 육군 역사연구의 냉전 유산]</p> <p>b. The Domestic Management and Media Coverage of Falle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Sang Ho Lee) [1950-1953년 한국전 참전용사의 국내 관리 및 언론 보도]</p> <p>c. Efforts by the Republic of China Government to Convert Chinese Communist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Young-sil Park) [한국전쟁 중 중국 공산군 포로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p> <p>d. United States-United Nations Relations in the Korean War: <i>Focusing on the Conflict over Aid Operations and War Expenses</i>(Dongwon Lee)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유엔 관계: 원조사업과 전쟁비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p>

기획주제 C는 산업경제 발전(Ca), 개신교교회의 확장(Cb), 젊은 세대의 초국적 이주(Cc)에서의 한국 군사주의의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시각에서 한국 군사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sup>18)</sup>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부패 스캔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는 4편의 논문(Da, Db, Dc, Dd)으로 구성된 기획구도를 통해 앞서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기획주제(D)의 의도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표 6] 참조).<sup>19)</sup>

한국영화의 역사적 자료에 주목한 기획주제(E)는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영화 100년의 시간을 5개의 하위 시기(일제강점과 해방, 1950~60년대, 1970~80년대, 1990~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하고, 한국영화학(korean film studies)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적 시각에서 식민지와 해방기의 활동사진(Ea), 195, 60년대 사극(historical drama)(Eb), 197, 80년대 상업영화(Ec), 1990~2000년대 한국 영화장르의 변화 과정(Ed), 2010년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영화의 잠재력(Ee)에 초점을 맞춰 각 시대의 영화사를 조명했다. 한류라는 같은 대중문화의 맥락에서 주제(F)의 기획의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K-pop 여성 아티스트의 작품(Fa), K-pop의 세계적 반향(Fb), 한국 웹툰의 세계화 과정(Fc), BTS의 명성(Fd), 박찬욱 감독의 영화 ‘하녀’(Fe), 디아스포라 관객(Ff) 등 한류의 다양한 측면들에 주목한 6편의 논문이 실렸다([표 6] 참조).<sup>20)</sup>

마지막으로 기획주제 G는 한국전쟁 관련 사료 편찬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냉전의 중심에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위치했는지를 밝힌 논문(Ga)과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둘러싼 군 조직과 이들 전사자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Gb), 정전협상의 지연 이유를 포로 문제에서 찾은 글(Gc), 그리고 전시비용을 둘러싼 미국과 유엔의 갈등에 비춰 한국전쟁의 경제적 측면을 다룬 연구 결과물(Gd)에 기초해서 한국전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려 했다([표 6] 참조).

- 
- 18) Ca는 방위 산업화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핵심적인 역할을 기록하고 있으며, Cb는 군사주의가 개신교에 스며들어 존속하는 공식,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고찰함으로써 종교와 군사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Cc는 교육 기회와 시민 의식을 위해 한국 청년 남성(미국 시민권자)의 삶에서 병역 의무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 19) Da는 촛불시위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를 탐구했다. Db는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개인 수준의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Dc는 19대 대선에서 부패 스캔들과 탄핵이 유권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Dd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위안부 문제와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자의적인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20) Fa는 한국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K-pop 여성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프레젠테이션과 공연을 조사했다. Fb는 K-pop의 세계적인 반향에 초점을 맞춰 K-pop의 성장에 기여했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파악했다. Fc는 한국 웹툰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탐구했고, Fd는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발전된 시대에 초국가적, 문화적 흐름에 대한 질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BTS의 명성을 살펴보았다. Fe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하녀’에 대한 다른 문화 간의 해석을 제공해주었고, Ff는 대중문화의 초국가적 흐름에서 한류가 캐나다 내 젊은 한국계 디아스포라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다.

## 2) 국외

국내 영문학술지들에 비해 특집이 적었던 KSJ도 여러 논문을 통해 기획주제의 의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표 7]과 같이 주제(A)의 기획의도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KSJ는 고려의 안과 밖의 역동성(dynamics of inner and outer)을 다각도로 분석한 9편의 기획 논문을 활용했다. 이들 논문은 고려의 국제 관계(international link)에 대한 조사로 시작해 고려사회의 성격과 다원주의 문제에 대한 고려로 끝을 맺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1세기 초 신라와 중국의 전통을 결합한 고려 통치체제의 구축 과정(Aa), 12세기에 걸친 고려와 동북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Ab), 고려 상인과 무역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Ac), 국제적 맥락에서 고려와 원, 고려와 중국 명나라의 관계(Ad)에 초점을 맞췄다. 대내적으로는 고려 지방행정구조(지방통치구조)의 발전 과정(Ae), 고려 왕(현종, 고종)의 역할 관점에서 고려의 불교 실천의 변화(Af), 고려의 지적 기판으로서의 유교사상(Ag), 고려 귀족가문의 친족 관계(Ah), 고려의 다원주의와 사회적 총체성(social totality)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표 7] KSJ의 기획논문

구분	기획주제	기획논문
KSJ	A. Koryŏ : An Introduction (2017)	a. Early Koryŏ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Tang and Song Institutions(Jae Woo Park) [고려 초기 정치제도와 당·송 제도의 국제적 확장]
		b.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and Medical Exchanges in the Late Eleventh Century and Early Twelfth Century(Oongseok Chai) [11세기 말과 12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와 의료 교류]
		c. Koryŏ's Trade with the Outer World(Kang Hahn Lee) [고려의 대외무역]
		d. Rethinking the Late Koryŏ in an International Context(David M. Robinson) [국제적 맥락에서 고려 후기 재검토]
		e. The Management of Koryŏ: Local Administration(Kunhyŏn) and Its Operation(Yokeun Jeong) [고려의 관리: 지방행정(건현)과 그 운영]
		f. Kings and Buddhism in Medieval Korea(Kongmyung Kim) [중세 한국의 왕과 불교]
		g. Analysis of Recently Discovered Late-Koryŏ Civil Service Examination Answer Sheets(Hyeon-chul Do) [최근 발견된 고려 후기 관직 시험 답안지 분석]
		h. The Makeup of Koryŏ Aristocratic Families: Bilateral Kindred (Myoung-ho Ro)[고려 귀족 가문의 구성: 양자 친족]
		I.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s of Koryŏ's Pluralist Society(Jong-ki



		Park) [고려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과 기원]
	B. Social Changes and Visual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 (2019)	<p>a. The Sonyösang Phenomenon: Nationalism and Feminism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Statue(Vicki Sung-Yeon Kown) [소녀상 현상 : '위안부' 동상을 둘러싼 민족주의와 페미니즘]</p> <p>b. Protesting Grandmothers as Spatial Resistance in the Neo-developmental Era(Su Young Choi) [신개발 시대의 공간적 저항으로서의 할머니 시위]</p> <p>c. Beyond Victims and Heroes: The 5.18 Cinema Across Gender Boundary: The Problem of Representing Historical Trauma in Cultural Productions(Jooyeon Rhee) [피해자와 영웅을 넘어: 성별 경계를 넘나드는 5.18 영화: 문화 작품에서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표현 문제]</p> <p>d. The Art of Witness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n Hong Sung-Dam’s Paintings(Hong Kal) [목격의 예술: 흥성담 그림 속 세월 호 참사]</p>

후속 주제(B)의 의미도 4편의 기획논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바쳐진 소녀상을 둘러싼 전례 없는 현상과 새로운 흐름의 페미니스트 행동주의(feminist activism)의 형성(Ba), 한국전력공사 밀양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노인 여성들의 시위(Bb), 영화 속 광주항쟁의 역사적 중요성과 성 표현(gendered representation)(Bc), 그림 속 세월호 참사의 시각적 목격(Bd)이 그것이다. 이들 논문은 시민들의 정치의제 홍보 및 동료 시민들과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시각적 미디어와 기술이 중요해진 시민 참여, 행동주의 및 시위 전략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표 7] 참조).

같은 해의 영문학술지인 JKS는 타 학술지들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일관되게 많은 편수의 기획논문을 배치했다. 일차로 처음 주제(A)는 성(gender)과 성성향(sexuality)에 대한 4편의 기획논문을 실어 그 의도를 살렸다. 17세기 한국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 낸 남성적 이미지와 이상을 탐구했고(Aa), 1980년대 민중 민족주의 이데올로기(minjung nationalist ideology)와 연계해 당시 에로영화의 특징과 역할을 분석했다(Ab). 가족 관계에 대한 대중 담론(활자 미디어, TV 드라마)이 사람들의 가족과의 실제 경험들과 교차하는 방법들(Ac)은 물론 새로운 미디어가 무속의 이미지와 범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도 보여주었다(Ad). 선행 주제와 비슷한 목적에서 다지역성, 역사, 인류학, 한국으로 표현되는 6편의 논문을 기획하기도 했다(B). 한국에 대한 초기 유럽인들의 이해에서 인류학자가 한 역할(Ba), 인류학자가 수집한 한국 사진의 가치(Bb), 1850년대에서 1945년까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러시아와 소련의 태도(Bc), 인류학의 관점에서 한국에 거주했던 선교사의 민족지학적 업적의 중요성(Bd), 한국 최고의 자연인류학자의 식민지 이후 지적 궤적(Be), 냉전과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의 맥락에서 당시

인류학 이론의 현실 감각(Be)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들 논문의 주된 목적이었다([표 8] 참조).

[표 8] JKS의 기획논문

구분	기획주제	기획논문
KSJ	A. In Memory of Nancy Abelmann (2016a)	a. Dilemma of the Lovesick Hero: Masculine Images and Politics of the Body in Seventeenth-Century Korean Love Tales(Janet Yoon-sun Lee) [상사병 영웅의 딜레마: 17세기 한국 사랑이야기의 남성 이미지와 몸의 정치]
		b. Woman in Ethnocultural Peril: South Korean Nationalist Erotic Films of the 1980s(Yun-Jong Lee) [민족문화적 위기에 처한 여성: 1980년대 한국 민족주의 에로영화]
		c. Family is Beautiful: The Affective Weight of Mothers-in-law in Family Talk in South Korea(Bonnie Tilland) [가족은 아름답다: 한국의 가족대화에서 시어머니의 정서적 무게]
		d. Shifting Agencies through New Media: New Social Statuses for Female South Korean Shamans(Liora Sarfati) [뉴미디어를 통한 변화: 한국 여성 무당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
KSJ	B. The Multi-Sited History of the Anthropology of Korea (2016b)	a. Contextualizing Maurice Courant, Pioneer of Korean Studies in Europe(Jong-Pil Yoon)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쿠란트]
		b. Visualizing Seoul's Landscapes: Percival Lowell and the Cultural Biography of Ethnographic Images(Hyung il Pai) [서울의 풍경 시각화: 퍼시벌 로웰과 민족지적 이미지의 문화 전기]
		c. Korea in the Russian and Soviet Imagination, 1850s-1945: Between Orientalism and Revolutionary Solidarity(Vladimir Tikhonov) [러시아와 소련의 상상 속 한국, 1850 ~ 1945 : 동양주의와 혁명적 연대 사이]
		d. So Close to the Canon, but...: Of Franz Boas, C. C. Vinton, and Some Korean Things(Laurel Kendall) [전형에 너무 가깝지만 ...: 프란츠 보아스, C. C. 빈튼과 몇몇 한국적인 것들]
		e. Reauthenticating Race: Na Sejin and the Recycling of Colonial Physical Anthropology in Postcolonial Korea(Hoi-eun Kim) [민족 재확인: 나세진과 탈식민지 한국에서 식민지 자연인류학의 재활용]
g. Imagining a Field Site: Preparing for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South Korea in the Mid-1970s(Clark W. Sorensen) [현장의 상상: 1970년대 중반 한국에서의 인류학적 현장조사 준비]		

<p>C. The Cold War in Korean Cinemas (2017)</p>	<p>a. Cold War Cosmopolitanism: The Asia Foundation and 1950s Korean Cinema(Christing Klein) [냉전 세계주의: 아시아재단 및 1950년대 한국영화]</p> <p>b. Film Auteursim as a Cold War Governmentality: Alternative Knowledge and the Formation of Liberal Subjectivity(Han Sang Kim) [냉전 통치성으로서의 영화 작가주의: 대안지식과 자유주의적 주관성의 형성]</p> <p>c. Destination Hong Kong: The Geopolitics of South Korean Espionage Films in the 1960s(Sangjoon Lee) [목적지 홍콩: 1960년대 한국 첩보영화의 지정학]</p> <p>d. Doubled Over 007: “Aryu Pondū and Genre-Mixing Comedy in Korea(Evelyn Shih) [007: “Aryu Pondū와 한국의 장르 혼합 코미디]</p> <p>e. Cold War Mnemonics: History, Melancholy, and Landscape in South Korean Films of the 1960s(Hyun Seon Park) [냉전의 기억: 1960년대 한국영화의 역사, 비애, 풍경]</p> <p>g. Wandering Ghosts of the Cold War: Military Sex Workers in the <i>Film Tour of Duty(Kōmi ūi ttang)</i> Jeehey Kim(Jeehey Kim) [냉전의 방황하는 귀신: 영화 거미의 땅에서의 군대 성노동자들]</p> <p>h. Departure and Repatriation as Cold War Dissensus: Domestic Ethnography in Korean Documentary(Jinhee Park) [냉전 의견 불일치로서의 출발과 송환: 한국 다큐멘터리의 국내 민족지학]</p>
<p>D. Science and Literature in Korea (2018)</p>	<p>a. Literature and Science: The State of the Field in Korean Studies (Jongon Hwang) [문학과 과학: 한국학 분야의 현황]</p> <p>b. As the Crow Files: Yi Sang’s Aerial Poetics(John H. Kim) [지름길: 이상의 공중시학]</p> <p>c. Fantasy, the Final Frontier: Making Science Moral in Postwar North Korean Youth Culture(Dafna Zur) [판타지, 최후의 변방: 전후 북한 청년문화의 과학 도덕화]</p> <p>d. The Neurocognitive Criminology of Avenging Memories: Dissociative Violence in Young-ha Kim’s <i>The Mnemonics of a Murderer</i>(Haerin Shin) [복수 기억의 신경인지 범죄학: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에서의 반사회적 폭력]</p> <p>e. The Posthuman and Transboundary Imagination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Considering the Works of Pae Myōnghun and Yun Ihyōng(Namkyung Yeon) [한국 현대문학에서의 포스트 휴먼과 초월적 상상력: 배명훈과 윤이현의 작품 고찰]</p>

		<p>f. <i>Between Science and Politics: Science Fiction as a Critical Discourse in South Korea, 1960s-1990s</i>(Sunyoung Park) [과학과 정치 사이: 한국의 비판적 담론으로서의 공상과학 소설, 1960-1990년대]</p> <p>g. <i>Encountering the Alien: Alterity and Innovation in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since 1945</i>(Benoît Berthelier) [외계인과의 만남: 1945년 이후 북한 공상과학소설의 변화와 혁신]</p> <p>h. <i>Monstrous Science: The Great Monster Yonggari</i>(1967) and Cold War Science in 1960s South Korea(Chung-kang Kim) [괴물 과학: 1960년대 한국의 용가리와 냉전과학]</p> <p>i. <i>Madness, Medicine, and Masculinity in Kim Tongin's "Oh, the Frail-Hearted!"</i>(Yoon Sun Yang)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에 나오는 광기, 의학, 남성성]</p>
	<p>E. Archives, Archival Practices, and the Writing of History in Premodern Korea (2019)</p>	<p>a. <i>Archival Practice in Premodern Korea: Record-Keeping as Archive and Historiography</i>(Sem Vermeersch) [전근대 한국의 기록 관행: 기록과 역사 편찬으로서의 기록 보존]</p> <p>b. <i>Culling Archival Collections in the Koryŏ-Chosŏn Transition</i>(Graeme R. Reynolds) [고려-조선 전환기의 기록 수집]</p> <p>c. <i>Compiling Diplomacy: Record-Keeping and Archival Practices in Chosŏn Korea</i>(Sixiang Wang) [외교 편찬: 조선 한국의 기록 보존 및 기록 관행]</p> <p>d. <i>Silencing the Culture of Chosŏn Buddhism: The Ideology of Exclusion of the Chosŏn Wangjo Sillok</i>(Sung-Eun Thomas Kim) [조선 불교문화의 침묵: 조선왕조실록배제의 이데올로기]</p> <p>e. <i>The Late Chosŏn Korean Catholic Archives: Documenting this World and the Next</i>(Franklin Rausch) [조선 후기 한국 가톨릭 기록 보관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기록]</p> <p>f. <i>Vernacular Itineraries: Korean Letters from Family to National Archive</i>(Ksenia Chizhova) [현지 일정표: 가족에서 국립문서보관소에 이르는 한글 편지]</p> <p>g. <i>Vernacular Story in and as Archives: (Re)Making Xingshi yan Stories in Early Modern China and Korea</i>(Yuan Ye) [아카이브 속의, 아카이브로서의 특유한 이야기: 현대 중국과 한국 초기 Xingshi yan 이야기 만들기]</p>

다음으로 기획주제 C는 아시아재단이 1940년대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설립된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한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 역사를 추적한(Ca), 냉전시대 한국 영화 제작자들의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특정 형태의 주관성을 이론화하고 있는 (Cb), 그리고 한국이 주도한 아시아 첩보영화 공동 제작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는(Cc) 논문들을 포함한 7편의 기획논문을 제공해 한국영화와 냉전 자체를 재정의하고자했

다.21)

이러한 대중 문화를 넘어 한국의 지식 문화와 관련된 기획논문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현대 한국의 문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 현실을 틀 지우는 방식(mode of framing reality)으로서 문학과 과학의 상동성(相同性)과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문학에 초점을 둔 9편의 논문에 기획주제(D)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Da는 식민지 한국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제국주의적 담론으로서 과학이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환기시키면서, 과학 기술과 시적 실천(poetic practice)(Db),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북한의 허구(fiction)와 실제(nonfiction)를 통한 과학 보급(Dc), 과학과 문학작품의 관련성(Dd), 현대성 담론의 비판 형태로서의 공상과학소설(De),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과학소설의 장기적인 영향(Df),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문화적 관습(cultural practice)으로서의 과학(Dg), 하향식의 이념적 선전 유형으로서의 냉전과학(Dh), 문학작품에서 과학적 사고체제에 대한 저항(Di)을 논하고 있다.

JKS의 마지막 기획주제(E)는 7편의 논문을 통해 전근대 분야에서 여전히 표출되지 않고 있는 질문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첫 논문 3편은 기록 보존과 기록 관행을 지식의 본질과 역사 만들기의 실천(the practice of history making)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2편의 논문은 조선시대 정통 유교 이념을 위협하는 이단으로 여겨졌던 불교와 천주교의 현대 역사기록학적 지식(historiographical knowledge) 형성에 대한 기록 권력(archival power)과 그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나머지 2편은 현대 기록보관소에 통합 될 때까지 소위 공인된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지 않았던 기록들의 궤적과 전송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22)

## IV. 영문학술지 특집의 비교 분석

### 1. 기획주제

분석 대상 영문학술지들의 기획주제를 비교해 보면 국내의 경우 RKS는 분석 기간인

- 21) 나머지 4편의 논문은 1960년대 영화법(film law) 강화에 따른 코미디영화의 장르 혼합의 잠재적 영향(Cd)과 함께 1960년대 한국영화의 연상작용(cinematic mnemonics)이 한국전쟁과 냉전에 대한 이질적이고 상반된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탐구했고(Ce), 한국에 있는 미국 캠프 타운의 매춘부들의 냉전의 젠더화된 기억(gendered memory)(Cf)과 더불어 남과 북, 일본의 냉전의 결과인 국경 이주와 이주민의 욕망에서 '불협화음'을 드러내는 가족에 대한 자서전적 다큐멘터리도 다루었다(Cg).
- 22) 구체적으로 Ea는 유럽 중심 혹은 중국 중심의 틀을 넘어 현대 기록 보존 문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Eb는 조선왕조 초기 수십 년간 체계화된 기록물과 기록 관행의 정치적 성격을 조사했다. Ec는 조선왕조에서 기록 보존의 논리와 관행 내에서 기록물로서 외교문서의 편찬 현황을 살펴봤다. Ed는 조선의 기록문화가 한국 불교 학문에서 어떻게 지적 경로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는지 설명했다. Ee는 조선 후기 한국 천주교 기록보관소에 보존된 가톨릭 기록의 협력적, 국제적 성격을 새롭게 조명했다. Ef는 중국 중심의 남성 지배의 영역을 넘어 조선 한국의 기록 보존 관리를 검토했다.

2016년 ~ 2020년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총 4회에 걸쳐 기획주제를 실었고, KJ는 총 7개의 기획주제를 학술지에 게재했다. 국외 영문학술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KSJ가 총 2회, JKS가 총 5회에 걸쳐 자체 학술지에 기획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국내의 경우 총 11회에 이르는 기획주제가 RKS와 KJ를 통해 다뤄진 반면 해외 영문학술지(KSJ, JKS)의 경우에는 총 7회에 걸쳐 기획주제를 실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4종의 영문학술지 가운데 국내 KJ가 가장 많은 수록 횟수를 보였고, 연 1회라는 발간 주기를 고려하더라도 국외 KSJ가 가장 낮은 게재율을 나타냈다.

분포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내외 차원보다는 비교 대상 영문학술지들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RKS와 KJ, 국외 KSJ의 기획주제들이 대체로 불규칙한 분포를 보인 반면 JKS는 다른 영문학술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발간 형태를 보였다. 기획주제가 없었던 2015년과 상·하반기에 걸쳐 기획주제를 발표했던 2016년을 제외하고 JKS는 2017년 ~ 2019년까지 기획주제를 하반기에 고정적으로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자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영문학술지들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국내 영문학술지의 기획주제가 특정 시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 영문학술지들은 특정 시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우 RKS는 전근대에, KJ는 현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KSJ와 JKS 모두 현대뿐만 아니라 수록 건수는 적었지만 전근대를 배경으로 한 기획주제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국외 KSJ와 JKS는 전근대에서 현대로, 현대에서 전근대로 관심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RKS와 KJ에서는 그와 같은 관심의 변화가 목격되지 않았다. 다만, 주제의 폭과 관련해서는 학술지들 사이에 차이를 보였는데, RKS와 KSJ, JKS가 대체로 폭 넓은 주제들을 통해 접근한 반면 국내 KJ의 기획주제들은 폭이 제한적이었다.

## 2. 기획의도

비교 시각에서 국내외 영문학술지들은 공통적으로 각기 기획주제를 통해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이해, 한국학 연구의 문제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RKS의 기획주제들은 한국학 분야의 연구문제와 과제를 인식시키고, 넓게는 국내외 한국학자들 간에 연구 성과와 연구시각을 공유케 함으로써 한국학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 KJ의 기획주제들 또한 한국학 제분야를 사례로 한국학 연구에 대한 균형 있는 현실 진단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학을 바라볼, 한국학 연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해외 영문학술지들의 기획의도 역시 맥을 같이했다. 한국학 분야의 연구 현실에 대한 인

식과 현실의 쟁점으로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한국, 나아가 한국학에 대한 보다 균형감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KSJ 기획주제들의 주된 의도였다. JKS의 기획주제들 역시 한국의 대중 및 지식 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재맥락화(recontextualizing) 작업을 통해, 한국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한국학 연구 성과의 의미와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차이는 이러한 기획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대 선택에 있다. 앞서와 같이 국내 영문학술지들은 나름의 기획의도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전근대에 해당하는 7~8세기 고대와 13~17세기 고려, 조선시대(RKS), 그리고 현대(KJ)를 선택했다. 국외 KSJ는 전근대 고려시대와 현대를 택했고, JKS는 후술한 바와 같이 현대와 함께 조선시대를 골랐다.

### 3. 기획논문

국내외 영문학술지들은 이와 같은 기획구도에 맞춰 많은 기획논문을 소개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RKS가 2016년 4편, 2019년 9편, 2020년 4편, KJ가 2018년 9편, 2019년 9편, 2020년 10편 등 총 45편의 기획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영문학술지의 경우에는 KSJ가 2017년 9편, 2019년 4편, JKS가 2016년 10편, 2017년 7편, 2018년 9편, 2019년 7편을 합쳐 총 46편에 달했다. 전체적으로는 RKS 17편, KJ 28편, KSJ 13편, JKS 33편으로 국외 JKS가 가장 많은 기획논문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영문학술지와 해외 영문학술지가 비슷한 편수의 기획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획논문의 주제별 수록 건수로 보면 국내의 경우 RKS는 기획주제별로 각각 4편, 5편, 4편, 4편의, KJ는 3편, 3편, 3편, 4편, 5편, 6편의 기획논문을 실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KSJ는 9편과 4편을, JKS는 4편, 6편, 7편, 9편, 7편을 각각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영문학술지보다는 해외 영문학술지가 비교적 많은 수의 다양한 기획논문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획논문이 다룬 분야는 앞서 서술한 시대를 배경으로 국내 RKS의 경우는 고대 종교, 고려시대 정치, 경제 분야와 조선시대의 문학, 언어, 음악, 의학, 건축 및 철학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였고, 현대의 사회, 문화(영화), 정치는 KJ가 여러 기획주제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집중한 분야였다. 국외 KSJ는 다른 영문학술지들의 기획주제 수와 비교해서 고려시대의 정치, 의학, 경제, 행정, 종교, 사회, 현대 문화 등 적지 않은 분야를 짚었고, JKS는 가장 많은 기획주제를 발표한 국내 KJ보다 적은 주제들로 현대 인류학, 문화(영화), 과학, 문학은 물론 전근대 문화(기록 문화) 분야도 아우른 특징이 있다.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 기획논문의 조달 형태다. 국내 RKS는 기획주제에 따라 국내외 한국학자들을 통해 논문을 조달했고, KJ는 기획주제와는 다소 무관하게 국내학

자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KJ는 RKS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JKS는 다른 학술지들에 비해 기획주제에 따라, 기획주제 내에서 국내외 한국학자들이 집필한 기획논문을 보다 균형 있게 실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논문은 또한 사례 분석 중심의, ‘개관적(概觀的)’ 성격의 연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외 영문학술지들은 이런 성격의 기획논문들을 적절히 배치해 기획주제의 의도를 살리고 있다.

## V. 결론 및 실천적 함의

본 보고서는 한국학 발전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한국학 영문학술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선행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외 영문학술지에 실린 특집들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현황을 기획주제, 기획의도, 기획논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함께 한국학의 연구 진작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 간의 한국학 정보 소통의 매개체로서 국내 영문학술지 특집들의 현주소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본원이 발간하고 있는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와 *Korean Journal*은 다양한 기획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한국학자들의 기획논문을 통해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먼저 기획주제의 수록 형태다.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와 *Korean Journal*은 국외 영문학술지들에 비해 더 많은 기획주제를 실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기획주제의 수록 형태가 불규칙적이라는 것이다.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제의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 전근대와 현대라는 특정 시대에 각각 집중하고 있는 것이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와 *Korean Journal*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영문학술지들 모두가 의도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이해, 한국학 연구의 문제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The Review of Korean Studies*가 표방하는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이론,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특정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시대뿐만 아니라 기획주제들의 폭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Korean Journal*에 특히 요구되고 있다. 두 영문학술지 간의 차별성은 일반논문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기획논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와 *Korean Journal*은 국외 영문학술지들과 견주어 비슷한 편수의 기획논문 또한 게재했으나 기획주제별 활용 건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Korean Journal*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기획 주제들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물론 분야까지도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거나 중첩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마저도 국내 학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Korean Journal*은 “한국문화의 소개 차원을 넘어 분석과 비판, 성찰”에서<sup>23)</sup> 그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외 한국학자들 사이의 관점 및 시각의 공유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기획주제에 따라, 기획주제 내에서 국내외 한국학자들의 시각과 관점을 공유하려는, 그것도 보다 균형 있게 공유하기 위한 다른 영문학술지들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요지는 한국학 영문학술지의 특집의 목적은 차별성이 아닌 공유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바탕이 될 때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와 *Korean Journal*의 특집이 비로소 서론에서 강조한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특집이 추구하는 국내외 다양한 한국학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3) 박명규. (2011). “Korea Journal을 통해 본 한국학의 국제화.” “세계화시대 국내 인문학 영문학술지의 발전 전략” KOREA JOURNAL 창간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자료집, 55-76, p. 58.

[부록] 수록 기획논문 현황

논문제목	출처
• Trends and Prospects: Historical Studies on Koryŏ-Mongol Relationship in the 13-14th centuries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19, Issue 2, 2016.
• Foreign Merchants' Visit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Koryŏ People's Responses, in the 13-14th centuries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19, Issue 2, 2016.
• Changes in the Logic and System behind the Succession of the Koryŏ Throne under Mongol Subjugation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19, Issue 2, 2016.
• From a Lord to a Bureaucrat: The Change of Koryŏ King's Status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19, Issue 2, 2016.
• The Fundamental Studies Concerning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the Associated Compilation of Texts with Collected Commentaries during the Reign of Sejong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1, 2019.
• 15 <sup>th</sup> century Korean Grammar from a Viewpoint of Linguistic Typology and Historical Grammar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1, 2019.
• The Music Trend in the 15 <sup>th</sup> century Korea Shown in the Written Materials of Seong Hyeon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1, 2019.
• Health Policies under Sejong: The King who Searched for the Way of Medicine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1, 2019.
• Architectural Design of Wooden Building during the 15 <sup>th</sup> century: Legacy and Beginning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1, 2019.
• Narrating Dissent in Joseon Literati Discourse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9.
• About the Tradition of Writing the "Fu on the Terrace for Viewing Fish" in the Early Joseon Period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9.
• State Symbols, Group Identity, and Communal Memory in Jeong Gyeong-un's <i>Godae illok</i> , 1592-1598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9.
• The Guan Yu Cult and Joseon-Qing Visions of State Legitimacy, 1882-1894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9.
• "The Transmission of the Canon is Difficult": The Problematic Formation of the Confucian Way in Korea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1, 2020.
• Some Remarks on Influences from Silla in Some Works Commonly Ascribed to Du Shun, Focusing on <i>Huayan fajie guanmen</i>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1, 2020.
• What Loved to Learn: The <i>Hwadam jip</i> and Seo Gyeongdeok's Place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Joseon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1, 2020.
• Toegye's Appraisal of Daoism	<i>The Review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1, 2020.
• Individualization and Community Reconstruction.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1, 2018.
• The Historical Context of Social Governance Experiments in East Asia: <i>The Challenge of Risk Society</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1, 2018.
• East Asian Patterns of Individu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for Neighborhood Community Reconstruction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1, 2018.
• Bringing the Society Back In: <i>The New Qinghe Experiment and Social Governance in China</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1, 2018.
• Queer/Korean Studies as Critique: <i>A provocation</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2, 2018.
• Proud of Myself as LGBTQ: <i>The Seoul Pride Parade, Homonationalism</i> ,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2, 2018.

<i>and Queer Developmental Citizenship</i>	
• Intimate Freedom: <i>Queering Anarchism in Leesong Hee-il's Films</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2, 2018.
• The Critical Social Turn of Queer Korean Cinema: <i>Hospitality and the Temporal Economy of Queer Kinship in The Bacchus Lady(2016)</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2, 2018.
• Legacies of Militarism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3, 2018.
• Mars and Manna: <i>Defense Industry and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Korea under Park Chung Hee</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3, 2018.
• Militarism and Korean Protestant Churches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3, 2018.
• Divergent Paths toward Militarized Citizenship: <i>The "Unending" Cold War, Transnational Space of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Korean Male Students</i>	<i>Korea Journal</i> , Volume 58, Issue 3, 2018.
• Corruption, Citizen Resistance,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n Korea: An Introduction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1, 2019.
• Articulating Inequality in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16-2017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1, 2019.
• Determinants of Unaffiliated Citizen Protests: <i>The Korean Candlelight Protests of 2016-2017</i>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1, 2019.
• 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 Switching in South Korea's 19 <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1, 2019.
• Privatized Foreign Policy? Explain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Process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1, 2019.
• A Century of Korean Film: From "Joseon Film" to Global Korean Cinema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4, 2019.
• The Identity of "Joseon Film": <i>Between Colonial Cinema and National Cinema</i>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4, 2019.
• The Status of Historical Frama Films in South Korea in the 1960s: <i>The Relevance between the Film Industry and Genre Films</i>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4, 2019.
• Coevolution of Conventions and Korean New Wave: <i>Korean Cinema in the 1970s and 80s</i>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4, 2019.
• From the Era of Melodrama to the Age of the Comedy and the Thriller: <i>The Simultaneous Transformations of Korean Society and Film Genr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i>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4, 2019.
• (In)Commensurability of Korean Cinema: <i>International Coproduction of Korean Films in the 2010s</i>	<i>Korea Journal</i> , Volume 59, Issue 4, 2019.
• Transnationality of Popular Culture in the Korean Wave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Ssen-Unni in K-Pop: <i>The Makings of "Strong Sisters" in South Korea</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Comparative Discourse on J-pop and K-pop: <i>Hybridity in Contemporary Local Music</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Webtoons Go Viral?: <i>The Globalization Processes of Korean Digital Comics</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You Can't Help But Love Them": <i>BTS, Transcultural Fandom, and Affective Identities</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Hallyu and Film Adaptation: <i>Maids of Decolonization in Park Chan-wook's The Handmaiden</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Diasporic Korean Audiences of Hallyu in Vancouver, Canada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1, 2020.

• From Forgotten War to Unforgettable War: <i>The Korean War at Seventy</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2, 2020.
• From Occupation to War: <i>Cold War Legacies of US Army Historical Studies of the Occupation and Korean War</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2, 2020.
• The Domestic Management and Media Coverage of Falle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2, 2020.
• Efforts by the Republic of China Government to Convert Chinese Communist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2, 2020.
• United States-United Nations Relations in the Korean War: <i>Focusing on the Conflict over Aid Operations and War Expenses</i>	<i>Korea Journal</i> , Volume 60, Issue 2, 2020.
• Early Koryŏ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Tang and Song Institutions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and Medical Exchanges in the Late Eleventh Century and Early Twelfth Century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Koryŏ's Trade with the Outer World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Rethinking the Late Koryŏ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The Management of Koryŏ: Local Administration(Kunhyŏn) and Its Operation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Kings and Buddhism in Medieval Korea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Analysis of Recently Discovered Late-Koryŏ Civil Service Examination Answer Sheets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The Makeup of Koryŏ Aristocratic Families: Bilateral Kindred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s of Koryŏ's Pluralist Society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1, 2017.
• Social Changes and Visual Culture in Contemporary Korea: An Introduction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3, 2019.
• The Sonyŏsang Phenomenon: Nationalism and Feminism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Statue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3, 2019.
• Protesting Grandmothers as Spatial Resistance in the Neo-developmental Era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3, 2019.
• Beyond Victims and Heroes: The 5.18 Cinema Across Gender Boundary: The Problem of Representing Historical Trauma in Cultural Productions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3, 2019.
• The Art of Witness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n Hong Sung-Dam's Paintings	<i>Korean studies Journal</i> , Volume 43, 2019.
• Dilemma of the Lovesick Hero: Masculine Images and Politics of the Body in Seventeenth-Century Korean Love Tale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1, 2016.
• Woman in Ethnocultural Peril: South Korean Nationalist Erotic Films of the 1980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1, 2016.
• Family is Beautiful: The Affective Weight of Mothers-in-law in Family Talk in South Korea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1, 2016.
• Shifting Agencies through New Media: New Social Statuses for Female South Korean Shaman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1, 2016.
• Contextualizing Maurice Courant, Pioneer of Korean Studies in Europe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2, 2016.
• Visualizing Seoul's Landscapes: Percival Lowell and the Cultural Biography of Ethnographic Image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2, 2016.
• Korea in the Russian and Soviet Imagination, 1850s-1945: Between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Orientalism and Revolutionary Solidarity	Volume 21, Issue 2, 2016.
• So Close to the Canon, but...: Of Franz Boas, C. C. Vinton, and Some Korean Thing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2, 2016.
• Reauthenticating Race: Na Sejin and the Recycling of Colonial Physical Anthropology in Postcolonial Korea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2, 2016.
• Imagining a Field Site: Preparing for Anthropological Fieldwork in South Korea in the Mid-1970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1, Issue 2, 2016.
• Cold War Cosmopolitanism: The Asia Foundation and 1950s Korean Cinema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Film Auteurism as a Cold War Governmentality: Alternative Knowledge and the Formation of Liberal Subjectivity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Destination Hong Kong: The Geopolitics of South Korean Espionage Films in the 1960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Doubled Over 007: “Aryu Pondū and Genre-Mixing Comedy in Korea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Cold War Mnemonics: History, Melancholy, and Landscape in South Korean Films of the 1960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Wandering Ghosts of the Cold War: Military Sex Workers in the <i>Film Tour of Duty</i> ( <i>Kōmi ūi ttang</i> ) Jeehey Kim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Departure and Repatriation as Cold War Dissensus: Domestic Ethnography in Korean Documentary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2, Issue 2, 2017.
• Literature and Science: The State of the Field in Korean Studie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As the Crow Files: Yi Sang’s Aerial Poetic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Fantasy, the Final Frontier: Making Science Moral in Postwar North Korean Youth Culture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The Neurocognitive Criminology of Avenging Memories: Dissociative Violence in Young-ha Kim’s <i>The Mnemonics of a Murderer</i>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The Posthuman and Transboundary Imagination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Considering the Works of Pae Myōnghun and Yun Ihyōng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Between Science and Politics: Science Fiction as a Critical Discourse in South Korea, 1960s-1990s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Encountering the Alien: Alterity and Innovation in North Korean Science Fiction since 1945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Monstrous Science: <i>The Great Monster Yonggari</i> (1967) and Cold War Science in 1960s South Korea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Madness, Medicine, and Masculinity in Kim Tongin’s “Oh, the Frail-Hearted!”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3, Issue 2, 2018.
• Archival Practice in Premodern Korea: Record-Keeping as Archive and Historiography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4, Issue 2, 2019.
• Culling Archival Collections in the Koryō-Chosōn Transition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4, Issue 2, 2019.
• Compiling Diplomacy: Record-Keeping and Archival Practices in Chosōn Korea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4, Issue 2, 2019.
• Silencing the Culture of Chosōn Buddhism: The Ideology of Exclusion of the Chosōn Wangjo Sillok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4, Issue 2, 2019.
• The Late Chosōn Korean Catholic Archives: Documenting this World and the Next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4, Issue 2, 2019.
• Vernacular Itineraries: Korean Letters from Family to National Archive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 Vernacular Story in and as Archives: (Re)Making <i>Xingshi yan</i> Stories in Early Modern China and Korea	Volume 24, Issue 2, 2019. <i>Journal of Korean studies</i> , Volume 24, Issue 2, 2019.
--	--